

응답하라 1978



광주가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바르게 알아달라는 것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시국 담화문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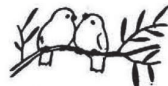


"구호보다도 올바른 인식"

지난 주 명동성당에서는 사회 복지회가 주축이 되어 광주사태의 중상자들을 위한 헌혈이 실시되고 수집된 혈액과 약품을 가지고 간호수녀 8명과 김중호 신부(의사)가 광주로 급파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측된 바와는 달리 중상자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으며 병원에 수용된 이들은, 이미 긴급 조처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었다. 김신부 일행은 지참한 약품과 혈액을 광주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미 광주 시민 자체내의 헌혈 움직임이 대단하여 혈액 보관용 냉장고가 거의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헌자의 의료진들은 이미 외부 의료진의 도움은 필요치 않은 상태이고 자체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약품 살 돈이 모자라든 우리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다 충당하겠으니 그 걱정은 말고 광주의 진실을 전 국민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전해 주면 그것이 우리를 돕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매스·콤 보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사상자 수를 전혀 밝혀 주지 못하고 있어 알 수 없으나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천인공노할 죄악이 백주대로부터 자행되었다고 증언한다.

한국 현대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을 「일부 극렬 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대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80만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최고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광주 시민들의 한 맺힌 가슴을 풀 길이 없으리라고 광주 자체들은 보고 있다. 한편 광주 대교구장 윤용희 대주교도 수차에 걸쳐 해당지 계엄 사령관에게 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력한 항의를 제출 하였다고 한다.



서울주보 111호(예수승천대축일,

서울주보 1980년 6월 8일자

1980년 5월 18일 자)는 위험한 시국에 대한 한국주교회의의 시국담화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주보 113호(삼위일체 대축일, 1980년 6월 1일 자)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월 23일 자로 신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고, 당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월 18일부터 조국의 평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9일기도를 함께 바치자고